

Deloitte Insights

September 2025



2025 글로벌 세무 혁신 트렌드

AI와 글로벌 질서 재편이 바꾸는 세무의 미래

Andy Gwyther 외 11인

Deloitte.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목차

서론 03

제1장. 데이터 04

트렌드 1. 상세 데이터의 보고 및 정량분석 필요성 강화 04

트렌드 2. AI 역량을 갖춘 세무 인재 수요 증가 05

제2장. 세무 업무 운영 모델 06

트렌드 3. 비용 압박 대응을 위한 업무 모델 전환 06

트렌드 4. 아웃소싱의 효과 확대 11

제3장: 기술 13

트렌드 5. 세무 부문의 최우선 과제, AI의 신중한 도입 13

트렌드 6. IT·재무가 결정하는 기술 투자 예산, 세무 역량 강화에 투입 모색 16

미래 세무의 핵심 역량과 전략적 시사점 17

조사 개요 18

서론

딜로이트의 「2025 세무 혁신 트렌드」 서베이는 급격히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빠르게 재편되는 글로벌 무역 질서 속에서 진행되었다. 보호무역주의 및 세제 조치가 규제 강화와 맞물리면서 보고 의무, 과세처리 원칙, 이전가격 정책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무 전략 수립이 한층 복잡해졌다. 동시에 세무와 재무 기능은 대규모 기술 혁신의 기로에 서 있고, 비용 압박 또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딜레마에 직면한다. 단기적으로는 비용 관리와 규제 준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식재산(IP) 구조 개편, 공급망·가치사슬 재편, 운영 모델의 근본적 전환과 같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세무 리더들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맞서며, 핵심 과제를 수행하고, 전략적 준비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새로운 기업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서베이는 전 세계 1,000명의 세무 및 재무 리더 대상 설문조사와 다국적 기업 세무 책임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다. 조사 결과, 외부 환경의 복잡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동시에 내부 조직 구조와 운영 모델에 관한 질문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무 및 재무 리더들은 데이터, 규제 준수, 비용 관리, 자동화 및 AI에 주력하고 있으며, 아웃소싱·공유 서비스·핵심 세무 기능 간의 최적 자원 배분 모델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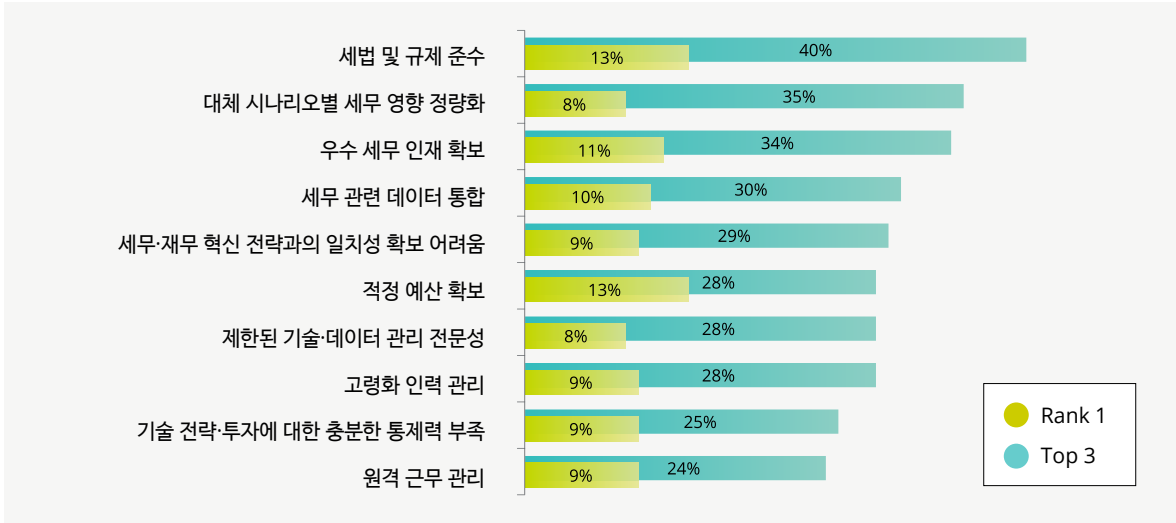
제1장. 데이터

많은 기업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하는 세무 운영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규제 당국이 점점 더 세밀한 수준의 세무 데이터를 요구하는 한편, 복잡해지는 경영 의사결정이 초래할 세무적 파급효과를 기업 스스로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이 맞물리며 이러한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 내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세무 목적에 맞게 사전에 정형화되어 있지 않거나,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세무 리더들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조직 내부 자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트렌드 1. 상세 데이터의 보고 및 정량분석 필요성 강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필라2(Pillar Two) 도입으로 기업의 국경간 국제 세무 데이터 보고가 의무화되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보고 규제가 확산되면서 세무 당국이 간접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한층 더 세밀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기업 의사결정의 세무적 파급효과를 적절히 조연하기 위해서도 보다 정교한 정보가 필요하다. 악조노벨(AkzoNobel)의 글로벌 세무 책임자 랄프 피터스(Ralf Pieters)는 세무 환경의 초점이 단순한 규제 준수에서 벗어나 데이터가 생성·수집되는 단계부터 세무 목적에 맞게 정제되고 정확하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고그룹(LEGO Group)의 세무 이사 제니 피스크(Jennie Fisk) 역시 세무 당국이 이제는 제품의 구체적인 구성과 제작 과정까지 알고 싶어 하며,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필요한 시점에 올바른 방식으로 정확한 데이터 포인트를 찾아내는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문성과 기술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응답자의 4분의 1 이상은 세무 부서 내 기술 및 데이터 관리 역량 부족을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3년 조사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로 지목되었던 '변화하는 세무 규제 준수'는 2025년 조사에서도 여전히 최상위 과제로 나타났으며(그림 1), 특히 충분한 예산 확보가 규제 대응과 동일한 수준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지역별 차이도 존재했다. 일본 응답자들은 전사 차원의 세무 데이터 통합(42%)을, 영국 응답자들은 대체 시나리오별 세무적 파급효과를 정량화하는 것(36%)을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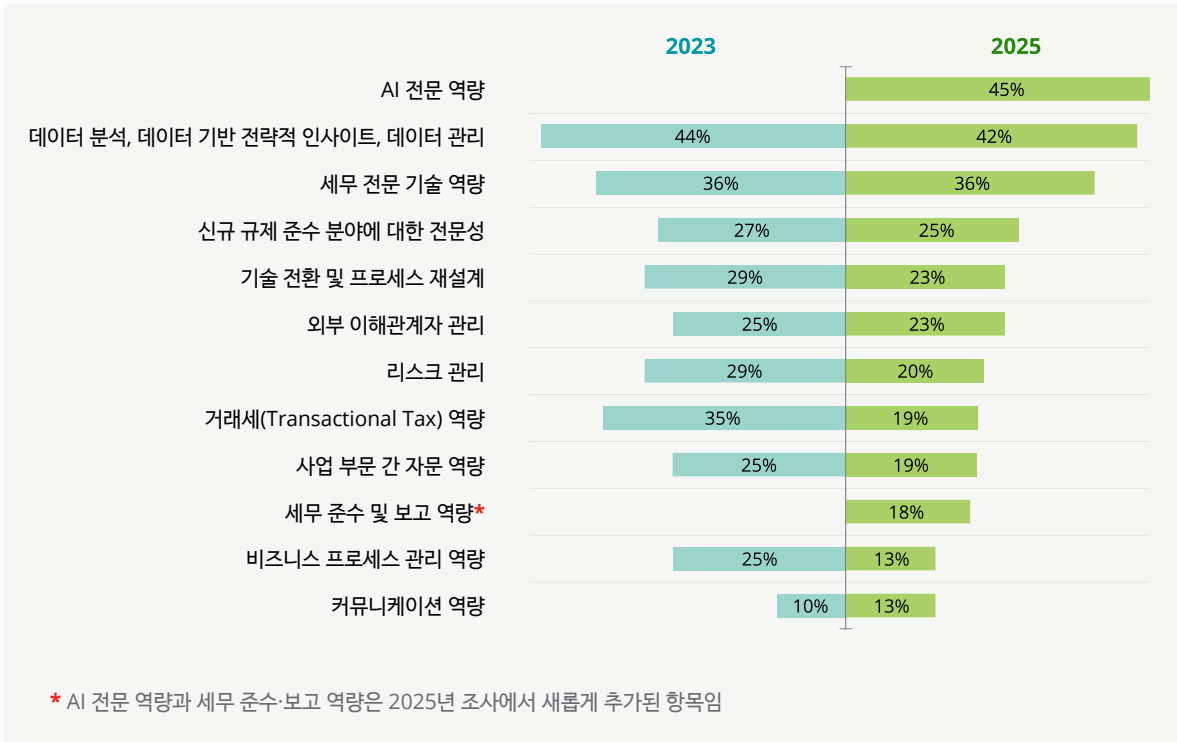
그림 1. 향후 3~5년간 세무·재무 부문이 직면한 주요 세 가지 도전 과제



트렌드 2. AI 역량을 갖춘 세무 인재 수요 증가

인재 확보는 이번 서베이에서 세 번째로 많이 언급된 과제였다(그림 1). 인재는 기술과 마찬가지로 다차원적 과제로, 다른 여러 트렌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향후 2년간 세무 리더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역량은 AI 활용 능력(45%)으로, 올해 새롭게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그 뒤를 이어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기반 전략적 통찰 역량(42%), 전문 세무 기술 역량(36%)이 중요 역량으로 꼽혔다(그림 2). 악조노벨의 글로벌 세무 책임자 랄프 피터스 역시 세무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AI 숙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림 2. 향후 1~2년간 세무·재무 부문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



그렇다고 해서 세무 전문성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에머슨 일렉트릭(Emerson Electric)의 글로벌 세무 기획 부사장 데이나 래슬리(Dana Lasley)는 자사 팀이 기본적으로 세무 전문가 집단이며, 그 위에 기술 역량이 더해지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제2장. 세무 업무 운영 모델

외부 환경 변화와 내부 요구가 동시에 커지는 상황 속에서 세무 리더들은 미래를 향한 진전과 현실적인 제약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자원 활용 전략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트렌드 3. 비용 압박 대응을 위한 업무 모델 전환

세무 업무의 수행 방식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다수의 세무 리더들은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단순화하는 것이 비용 절감으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복잡성은 비효율을 낳고, 이는 곧 비용 증가로 이어지지만, 단순화는 오히려 비용 절감의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에머슨 일렉트릭 글로벌 세무기획 부사장 데이나 래슬리는 모든 것을 중앙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이를 통해 자동화를 적극 활용하고 덜 복잡하거나 규모가 작은 사안은 해외 세무 허브로 이전해 표준화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적절한 형식으로 확보하고 데이터 흐름을 통합하는 것은 필라2 규제 대응이나 세무 마감 절차 간소화 등 컴플라이언스 관련 복잡성과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데이터 통합: 산업별 차별화된 도전과제

데이터 통합은 업종별로 상이한 도전 과제를 야기한다. 특히 생명과학·헬스케어(37%)와 금융(34%) 기업들은 데이터 통합을 상위 3대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이들 산업은 규제 강도가 높다. 특히 은행을 비롯한 금융 회사들은 다수의 법인을 아우르며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통합 과정에서 복잡성과 보고 건수가 동시에 증가한다.

새롭게 부상한 세무 직무, 운영 중심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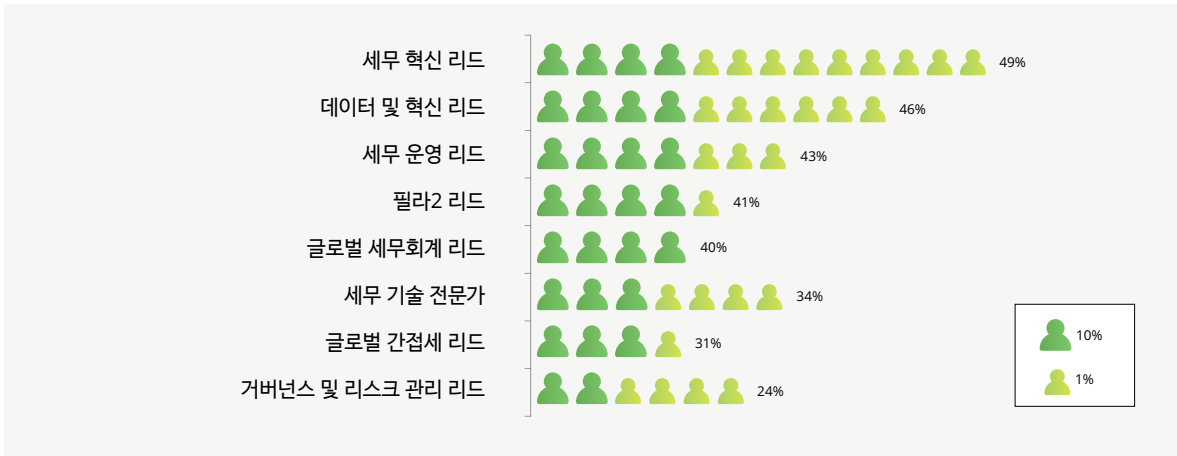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운영과 기술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세무 리더들은 지난 2년 동안 세무 혁신 리드(49%), 데이터 및 혁신 리드(46%), 세무 운영 리드(43%) 등 직무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보고했다(그림 3). 이는 세무 부서가 단순한 기술적 과세 역량을 넘어, 운영 우선순위를 주도하는 내부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용 압박은 이번 서베이 전반에 걸쳐 드러난 핵심 주제이며, 실제 시장에서 관찰되는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많은 세무 리더들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예산 삭감 요구에는 익숙하지만, 최근에는 축소된 예산 안에서 세무 인력의 급여 인상과 같은 예기치 못한 항목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매년 부과되는 구체적인 비용 절감 목표와 맞물려, 어려운 의사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스럽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오늘날 세무 리더들은 CFO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더 창의적이고 유연한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에밀리 반블리트(Emily VanVleet)
딜로이트 텍스 LLP 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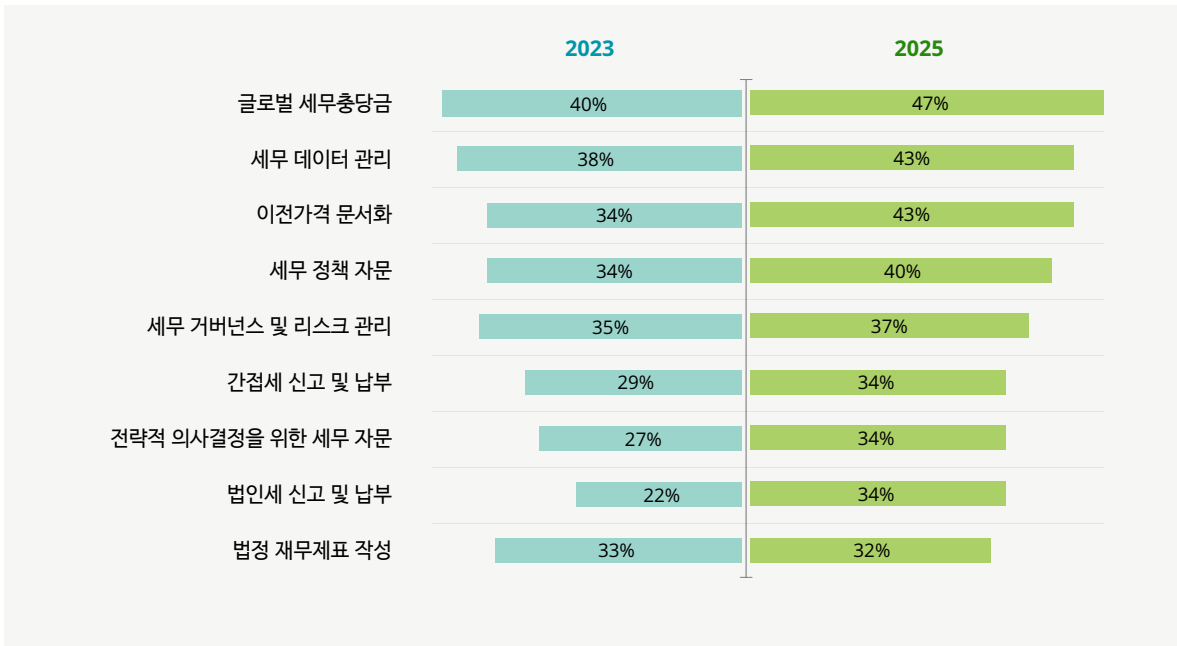
그림 3. 최근 2년간 세무 부서에 신설된 주요 직무



세무 업무 수행의 새로운 패러다임: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운영 모델

세무 리더들은 세무 프로세스를 보다 낮은 비용 구조로 운영하기 위해 비용 효율적인 자원 활용 모델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 포함된 9개 세무 프로세스 가운데 법정 재무제표 작성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2023년 조사 대비 비용 절감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대부분의 영역에서 비용 절감의 중요도가 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는 것이다 (그림 4).

그림 4. 1~2년내 비용 효율화 전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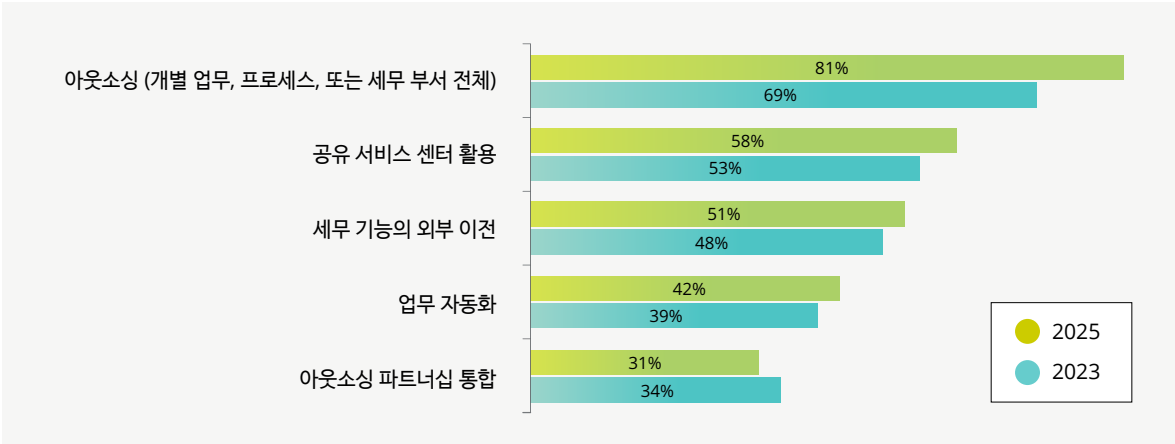


그 중에서도 글로벌 세무충당금(Global tax provision)산정은 비용 절감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혔으며(47%), 이는 2년 전보다 7%p 증가한 수치다. 특히 연 매출 200억 달러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60%가 이 항목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이러한 대형 다국적 기업은 이전가격 문서화(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의 비용 절감(60%)에도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서베이에 참여한 세무·재무 리더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용 절감 전략은 아웃소싱이었다. 특정 업무나 프로세스, 심지어 세무 기능 전체를 위탁하는 것을 포함하는 아웃소싱에 대한 선호도는 2023년 69%에서 2025년 81%로 크게 증가했다. 두 번째로 많이 선택된 전략은 공유 서비스 센터(SSC) 활용 확대(58%)로, 지난 조사 대비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그림 5a).

공유 서비스 센터는 이미 많은 세무 부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카콜라 유로퍼시픽 파트너스(CCEP, Coca-Cola Europacific Partners)다. 이 회사는 31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현지 시장에는 주로 로컬 보틀링 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CCEP 세무·관세 부문 부사장 마거릿 쇼어(Margaret Shore)는 가능한 모든 활동을 중앙화한다는 원칙 아래, 표준화와 단순화를 통해 중앙화가 가능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유 서비스 센터로 이전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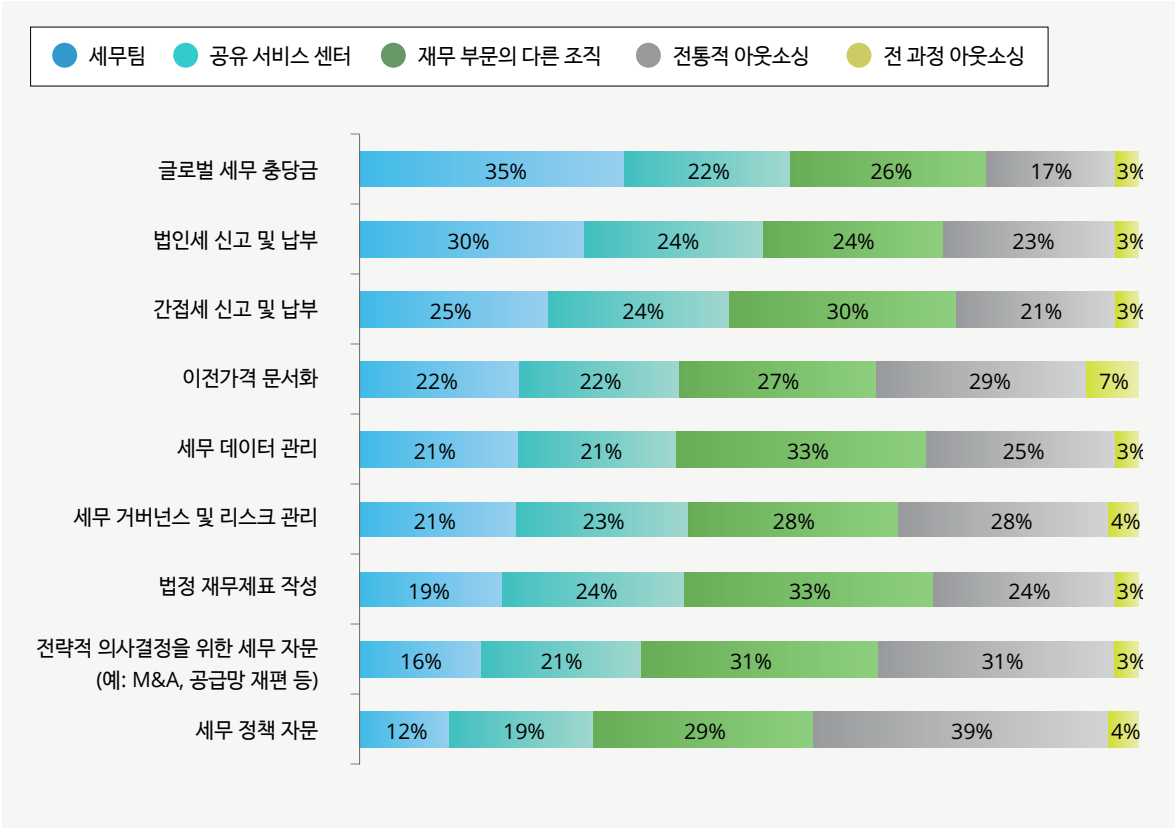
그림 5a. 세무 운영 모델의 비용 혁신 전략



공유 서비스 센터는 주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간접세 신고 및 납부, 법정 재무제표 작성 업무에 활용되고 있으며, 각각 24%의 응답 비중을 차지했다(그림 5b). 그러나 공유 서비스 센터가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모든 세무 업무를 공유 서비스 센터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세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어려움(그림 1 참조)은 세무 부서 자체에서도 존재하지만, 그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전 여부가 아니라, 기존 재무센터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세무 프로세스 중 적합한 요소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림 5b. 세무 기능의 주요 프로세스 및 활동 수행 방식



"필요한 세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찾고, 채용하고,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작업 중심의 세무 프로세스는 공유 서비스 센터로의 효과적인 이전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어떤 세무 업무가 전환에 적합한지를 분석하는 과정 자체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세무팀은 프로세스 분석, 인재 확보, 공유 서비스 센터를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구축할 만큼의 여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나 스티븐스(Donna Stephens)
딜로이트 텍스 LLP 매니징 디렉터

세무 업무의 주체: 인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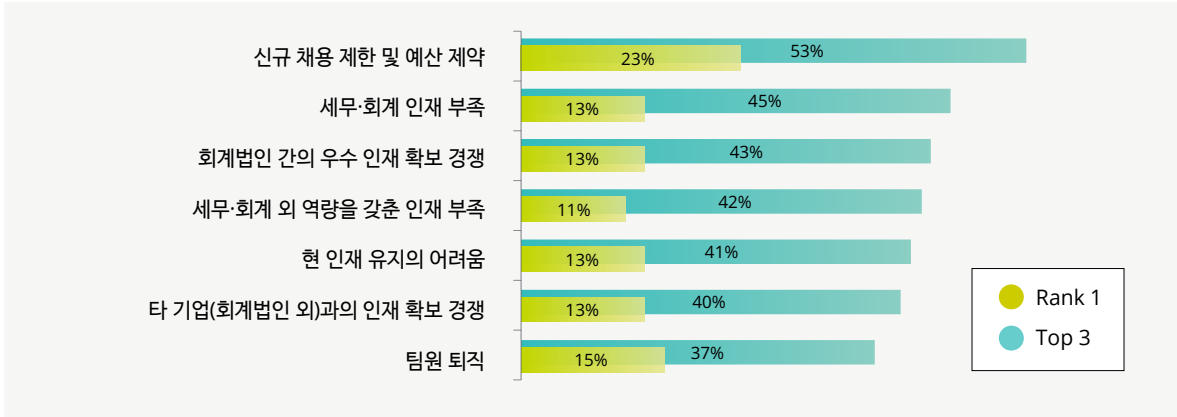
이번 서베이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자원 활용 전략은 재무 부서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데이터와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는 재무 부서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부서가 업무를 맡든 인력 확보는 여전히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3%)은 향후 2년간 세무 인력 운영에서 예산 제약과 신규 채용 제한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그림 6), 특히 세무 전문성과 디지털 역량을 동시에 갖춘 인재를 찾는 일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스엠 퍼메니쉬(dsm-firmenich)의 글로벌 세무 책임자 이보 넬리슨(Ivo Nelissen)은 세무와 디지털 기술을 모두 갖춘 인재만을 찾는 좁은 접근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세무 전문가 중 디지털 기술 학습 의지가 있는 인재나 디지털 전문가 중 세무 지식을 배우려는 인재까지 범위를 넓혀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재 부족을 해소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동화다(3장 참조). 에머슨 일렉트릭의 글로벌 세무 기획 부사장 데이나 래슬리는 수작업으로 엑셀을 다루며 분석하는 방식 대신 가능한 많은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대시보드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화는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세무 인력이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업무 방식을 받아들이도록 장려하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그림 6. 세무 부문의 적정 인재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



트렌드 4. 아웃소싱의 효과 확대

비용 절감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는 재무 부서 인력 활용과 공유 서비스 센터 운영이 꼽혔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86%는 최소 한 가지 세무 프로세스에서 아웃소싱(단일 업무, 특정 프로세스, 또는 부서 전체 포함)을 도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웃소싱은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31%)이 주요 세무 운영 전략으로 선택했으며, 특히 전통적 아웃소싱은 최근 세 차례 조사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세무 부서가 아웃소싱을 통해 가장 큰 성과를 경험하거나 기대하는 영역은 운영비 절감(68%), AI를 포함한 최신 기술 역량 확보(67%), 유연성과 확장성 제고(67%)로 나타났다(그림 7). AT&T 세무 운영 및 기술 담당 수석 부사장 잉그리드 베르너(Ingrid Berner)는 아웃소싱을 통해 서비스 제공업체가 프로세스를 표준화·간소화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적은 인력으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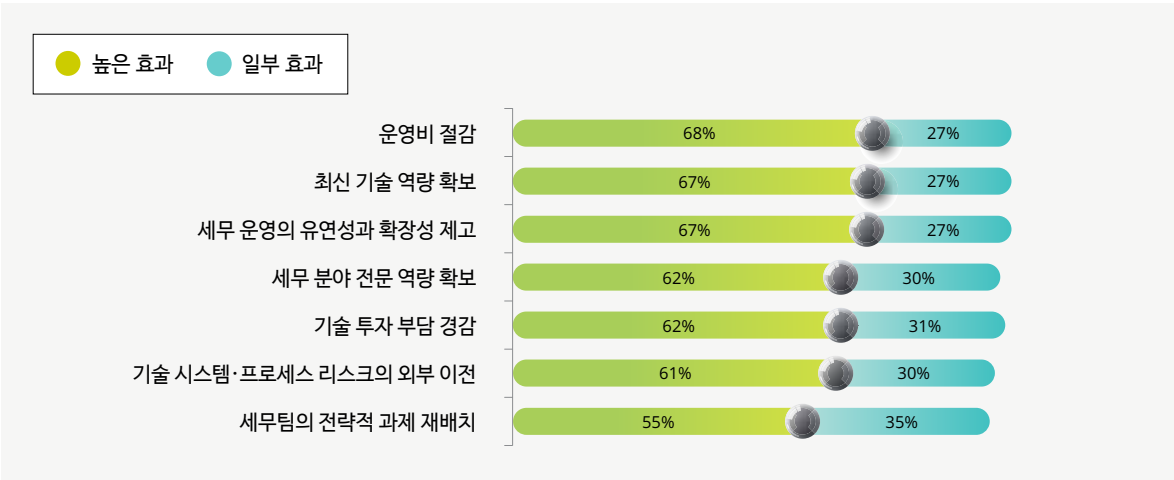
매출 200억 달러 이상 기업의 응답자들은 아웃소싱의 주요 성과로 최신 기술 역량 확보(77%), 기술 시스템 및 프로세스 관련 리스크 이전(70%), 세무팀의 전략적 과제 재배치(70%)를 꼽았다. 흥미롭게도 이 그룹은 다른 응답자들과 달리 운영비 절감(60%)을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 요인으로 평가했다.



"과거의 아웃소싱은 주로 일회성 비용 절감과 제한적인 효율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CFO들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혁신적인 도구와 자산을 운영에 통합하여 비즈니스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BPO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CFO들은 이제 아웃소싱을 통해 AI 기반 및 산업별 특화 솔루션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비용 절감의 속도뿐만 아니라 규모까지 확대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이스(Caroline Leies)
딜로이트 컨설팅 LLP 매니징 디렉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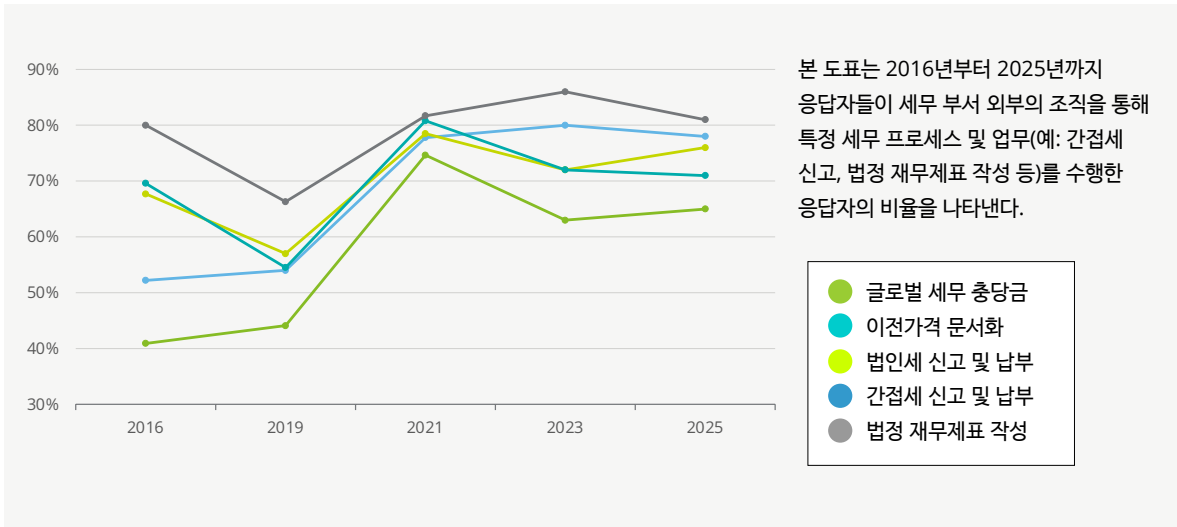
그림 7. 아웃소싱의 주요 효과



아웃소싱, 세무 운영의 새로운 표준

세무 부서에서 세무 프로세스를 분리하는 움직임은 이제 새로운 운영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고 있다. 세무 부서 외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숙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그림 8), 세무 리더들이 제약된 환경 속에서도 아웃소싱 등 대안적 모델을 활용해 세무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실질적 가치와 민첩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8. 세무 부서 외부에서 수행되는 주요 세무 활동



세무 부서는 과연 자원 배분의 최적 균형점을 찾은 것일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AI와 고도화된 세무 기술의 도입은 머지않아 이 균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AI를 적극 활용하면 아웃소싱 비중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AI 기반의 효율화를 성공적으로 구현한다면 아웃소싱 의존도는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현 단계에서는 어느 쪽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기에, 향후 추이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제 세무 업무는 단일 부서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러 유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수행되는 것이 보편적인 운영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세무 운영의 통합 모델'이 제공하는 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단순히 자원·데이터·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세무 기능이 비즈니스 전반에 깊이 내재화되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뒷받침합니다. 그 결과 기업은 더 나은 인사이트, 고도화된 전략 자문, 그리고 비용 최적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통합 모델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무 리더들이 세무 업무 전 과정에 걸쳐 견고한 거버넌스와 최적의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임스 폴(James Paul)
딜로이트 UK 세무자문부문 파트너

제3장. 기술

트렌드 5. 세무 부문의 최우선 과제, AI의 신중한 도입

세무 부서는 예외 없이 생성형 AI(GenAI) 활용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번 서베이에 참여한 1,000명의 응답자 전원은 AI 도입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을 최소 한 가지 이상 꼽았다.

세무 인력의 핵심 역량과 관련해 응답자의 57%는 AI 역량을 이미 '필수적'이라고 답했으며, 32%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라고 응답했다. 이 비율은 향후 빠르게 확대될 전망으로, 응답자의 82%는 2~3년 내에는, 응답자의 94%는 4~5년 내에는 AI 역량을 필수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 선도 기업들은 세무 부서 내 AI 도입의 비즈니스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특정 활용 사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세무 리더들은 AI의 잠재력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그림 9), 첫 번째 우선순위를 반복적인 데이터 입력·처리 자동화에 두고, 보다 전략적이거나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업무는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

이는 세무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으로 해석된다. 충분히 검증된 세무 특화 솔루션이 보급되거나, 민감한 업무와 자문에 필요한 정확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보수적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비세무 분야에서의 AI 활용 패러다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업무에만 AI를 적용하는 개별적·단편적 접근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동일한 AI 기능과 특성을 다양한 세무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활용하는 통합적 접근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유사한 업무가 많은 재무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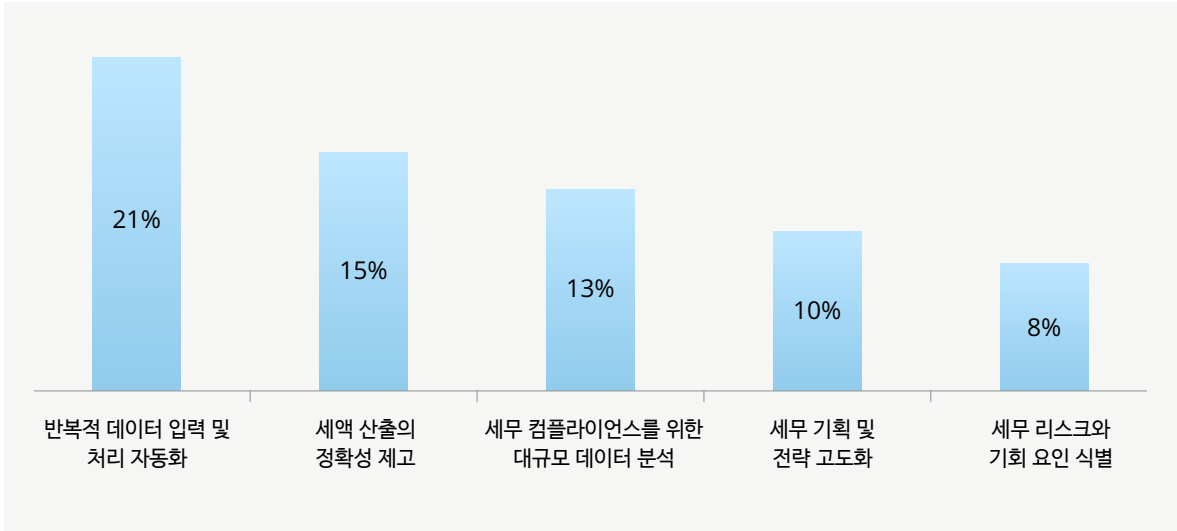
에이전틱 AI(agentic AI)의 도입도 속도를 내고 있으나, 전체 직무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간접세·직접세, 이전가액, 연구개발 세액공제(R&D credit) 등 기존 세무 프로세스를 보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문하는 기업들에서도 사용자 친화적인 로우코드(low-code) AI 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툴은 세무 전문가들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상용화된 생성형 AI 툴을 세무팀 내에서 활용할 경우 팀원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AI는 세무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세무팀이 부가가치가 높은 전략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듯, 성공적인 AI 활용의 핵심은 결국 데이터 품질입니다. 즉, 데이터의 수집, 검증, 정합성 확보, 표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벤 바로딘(Ben Barudin)
딜로이트 텍스 LLP 매니징 디렉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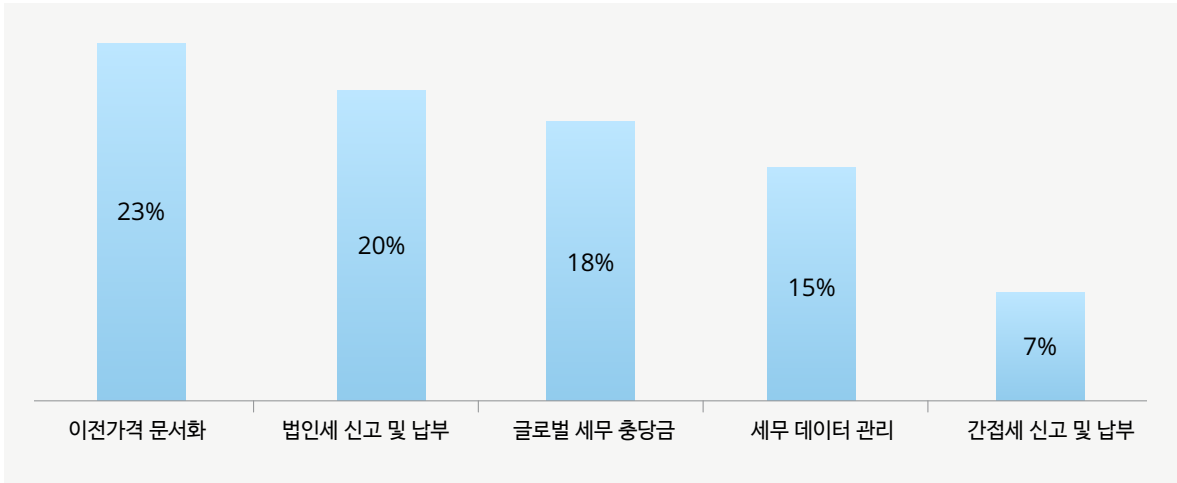
그림 9. 세무 분야 AI 활용의 최우선 과제



응답자들은 이전가격 문서화를 AI가 가장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 평가했다(그림 10). 악조노벨의 글로벌 세무 책임자 랄프 피터스는 세무 부서가 작성해야 하는 문서가 이전가격 관련 자료, 로컬 파일, 정책, 계열사 간 계약 등 매우 다양한데, AI를 활용하면 지금까지 세무 전문가들이 직접 수행해온 상당 부분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뒤를 이어 법인세 신고 및 납부가 두 번째, 글로벌 세무 총당이 세 번째로 꼽혔다. 이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프로세스 중심의 업무가 세무 분야에서 AI 도입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10. 세무 리더가 AI 도입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영역



AI의 잠재력은 세무 예측, 리스크 식별, 경영 인사이트 제공 등 전략적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정확성과 보안에 대한 우려로 인해 도입에 여전히 신중하다. 악조노벨의 글로벌 세무 책임자 랄프 피터스는 세무 업무에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 많아 여전히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일이 많으며, ChatGPT와 같은 도구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요구되는 수준의 품질과 완전성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AI가 효율성을 높이고 수작업 오류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복잡한 세무 영역에서의 활용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일부 응답자들은 정확성과 효율성 간의 균형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응답자의 77%는 AI의 정확도가 90% 이상이고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면 수용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반대로 정확도가 80% 미만일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세무 분야에서 AI의 미래는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와 전략적 인사이트 제공 간의 균형에 달려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업무 처리 수준을 넘어 세무 부서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보다 영향력 있는 AI 솔루션으로 발전해야 한다. 피터스 역시 AI가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 속에서 최소한 일상적인 반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세법 해석과 같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핵심 영역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무 부서와의 협업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세무 분야에 특화된 AI 도구가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재무 중심의 AI 툴을 활용하면 세무 운영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머신러닝, 대규모 언어모델(LLM), 자연어 처리(NLP)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생태계의 확장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자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와 같은 보다 진보된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에머슨 일렉트릭의 데이나 래슬리는 자사에서 AI를 활용하고 있지만 그 적용과 관리는 IT 부서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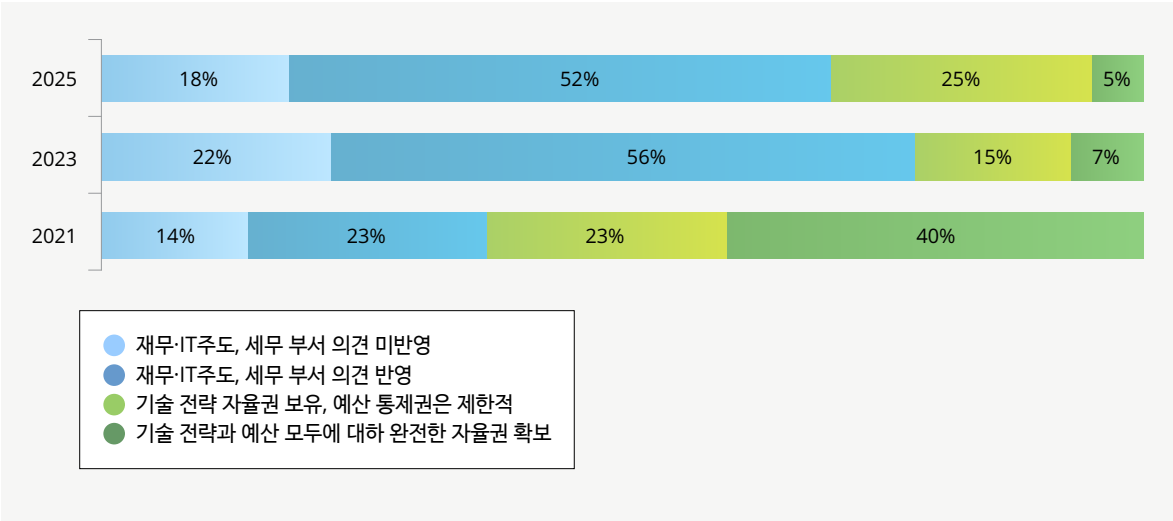
트렌드 6. IT·재무가 결정하는 기술 투자 예산, 세무 역량 강화에 투입 모색

최근 세무 부서는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활용해 세무 관련 핵심 데이터와 일부 세무 프로세스를 재무 기능 전반에 통합하는 데 주력해왔다. 응답자들 역시 ERP 시스템에 대체로 만족을 표시했으며, 최소 70%는 ERP가 자신들의 요구를 ‘완전히’ 혹은 ‘대부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다수의 ERP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에머슨 일렉트릭의 데이나 래슬리는 자사가 과거 다각화된 산업 기업이었기 때문에 ERP를 100개 이상 보유하게 되었으며, 인수 과정에서도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지 않고 기존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복잡성은 세무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 상당한 추가 노력을 요구하며, OECD가 추진 중인 ‘세무 행정 3.0’(Tax Administration 3.0)의 관점에서는 잠재적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세무 행정 3.0은 투명성과 원활한 데이터 통합을 요구하지만, 현실의 복잡성과 불완전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데이터 취합의 어려움이 진전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무 프로세스 자동화가 ERP 고도화에 크게 의존하게 되면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누가 결정하는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5년 조사에서는 2023년에 비해 더 많은 세무 부서가 자체 전략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답했지만, 예산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그림 11). 문제는 세무의 우선순위가 재무의 예산 편성과 항상 일치하지 않아 세무 부서의 요구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무 부서는 재무·IT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투자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그 가치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무 데이터와 기술 요건을 가장 잘 이해하는 세무 부서와, 자금 집행과 실행을 주도하는 재무·IT 부서 간의 불일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 세무 부서의 기술 전략 및 예산에 대한 통제 수준



미래 세무의 핵심 역량과 전략적 시사점

2025년 딜로이트 세무 혁신 트렌드는 세무 리더들이 어떻게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세무 운영 모델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보여준다. AI와 아웃소싱부터 비세무 분야 인재 확보에 이르기까지, 세무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모색되고 있다.

비록 세무 특화 AI 솔루션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세무 리더들은 이미 AI가 세무 부서를 재편할 수 있는 핵심 영역을 식별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과도한 리스크를 방지하려는 균형도 추구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 제공하는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근본적 과제 해결에도 집중하고 있다.

데이터가 풍부해질수록 세무 리더들은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의 역량을 활용해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이 미칠 세무적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자문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은 현재와 같은 지정학적·경제적 환경에서 더욱 필수적이며, 세무 부서는 중요한 순간마다 기업에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 세무 부서는 마침내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테이블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세무 부서는 이러한 환경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고, 미래 지향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



조사 개요

딜로이트는 FT 론지튜드(FT Longitude)와 협력하여 다양한 산업, 기업 규모, 지역에 걸쳐 활동하는 세무 및 재무 부문 고위 임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2024년 12월 중순부터 2025년 2월 중순까지 진행되었다.

그림 12. 응답자의 국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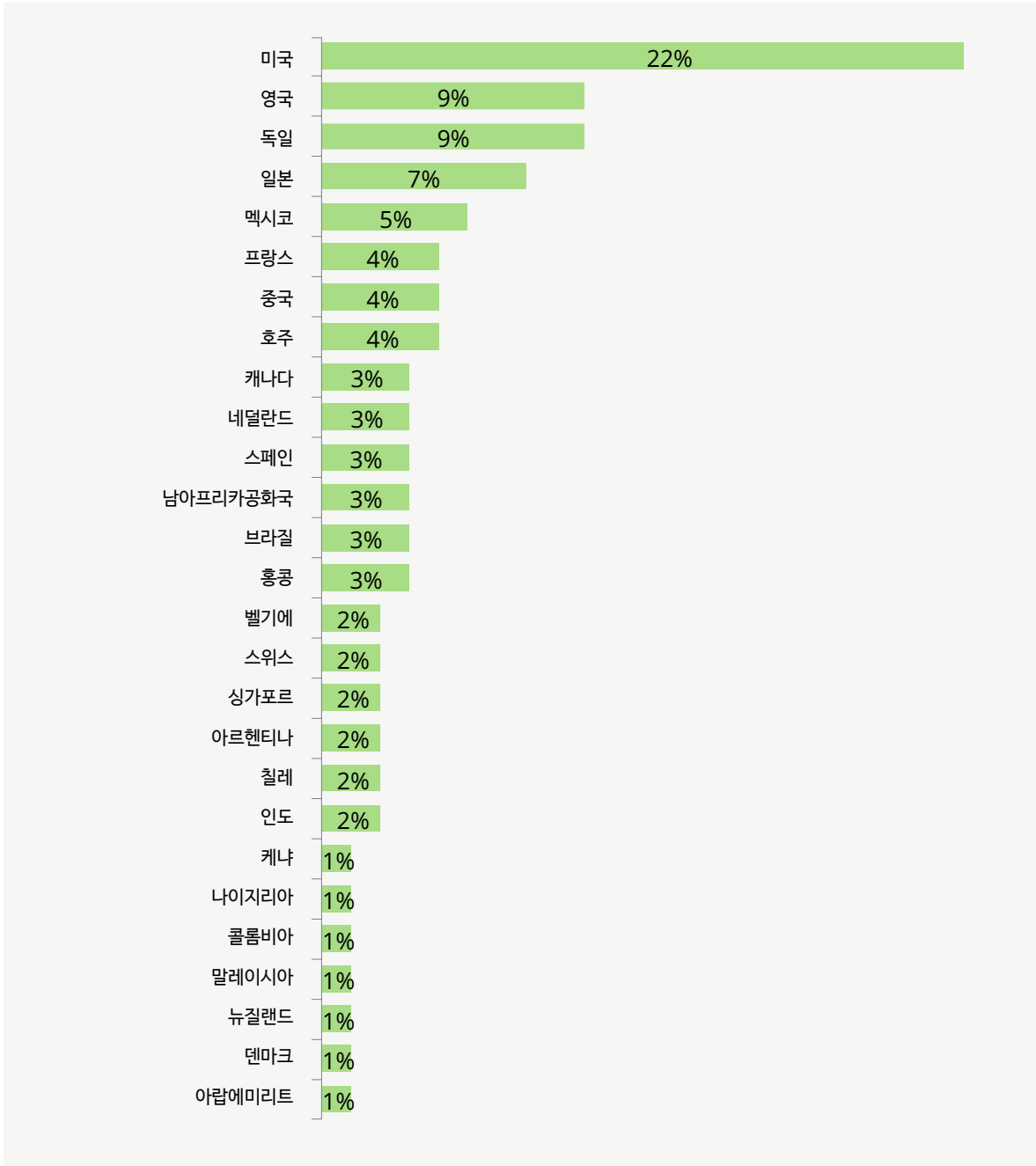


그림 13. 응답자의 산업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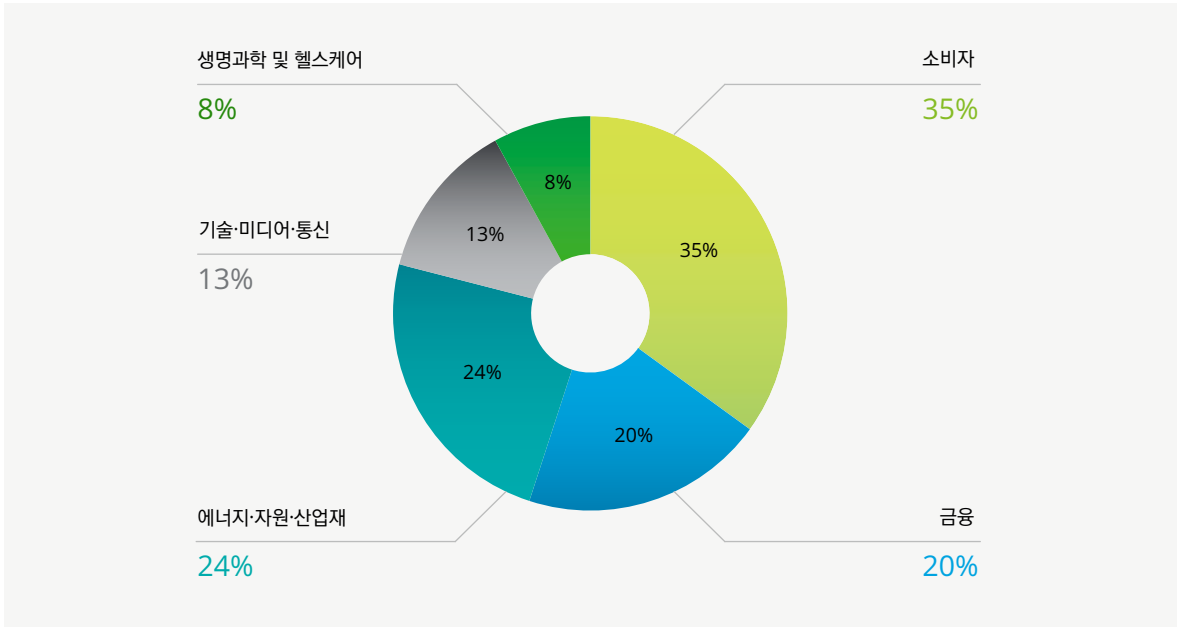


그림 14. 응답자의 직급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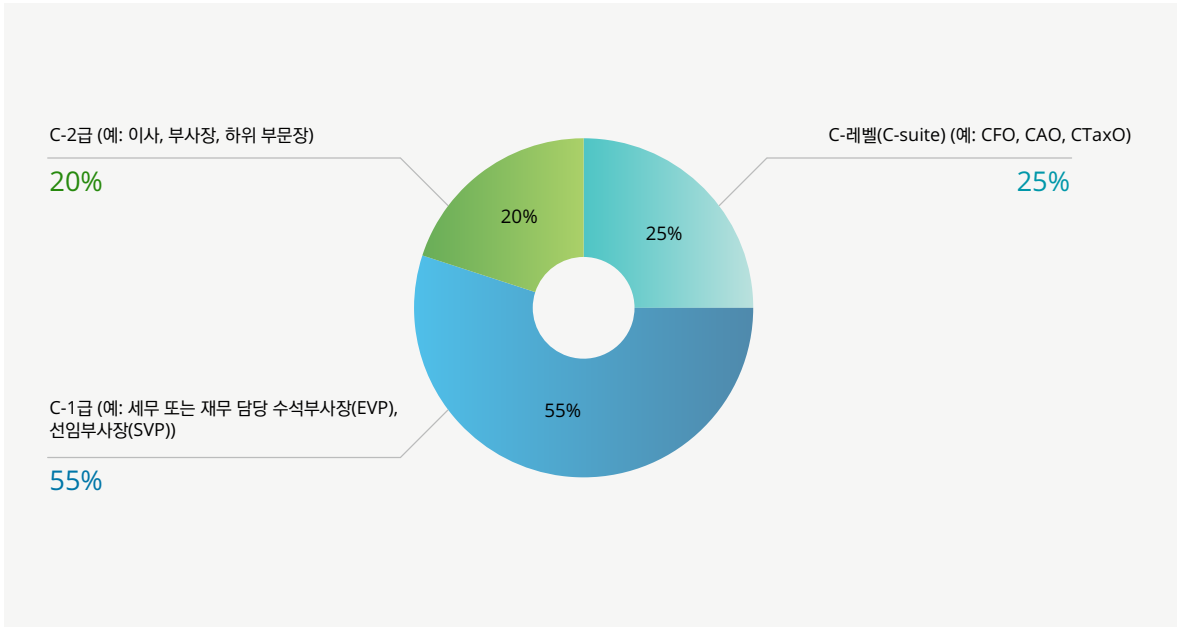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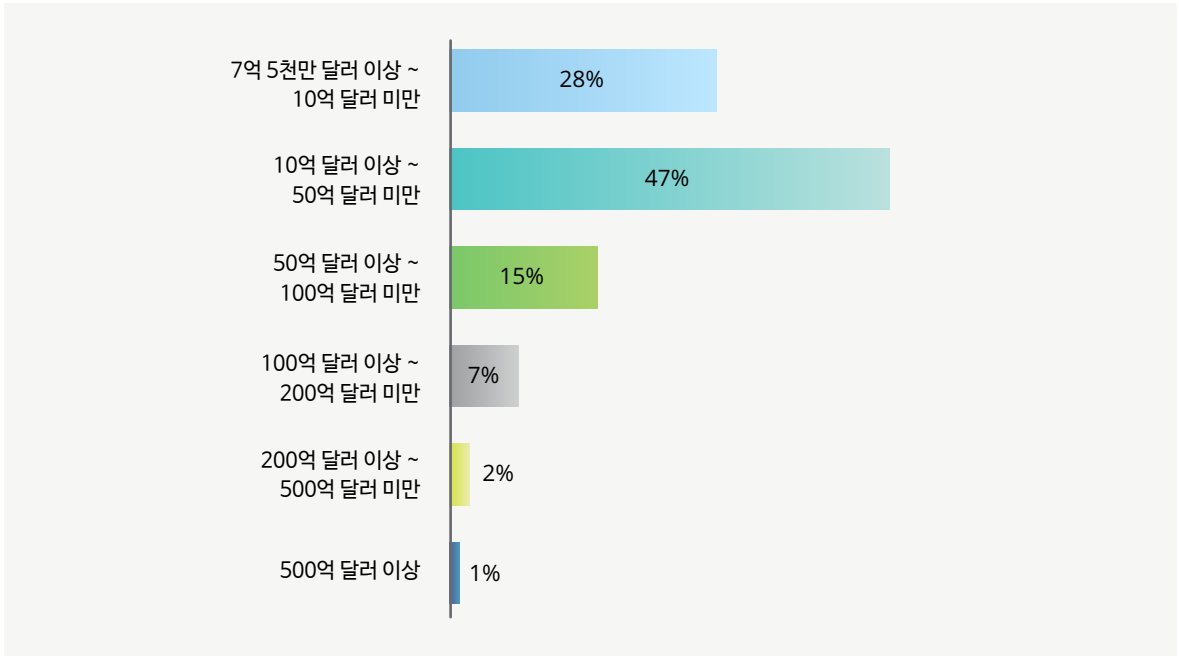


그림 15. 응답 기업의 매출 규모 분포



한국 딜로이트 그룹 산업 전문가

세무자문부문 (Tax & Legal)

세무자문부문은 국내·외 조세 규정과 국제 조세 이슈 등을 분석하고 딜로이트 글로벌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객이 세무 관련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세무자문부문은 기업 세무, 국내·외 투자 자문, 기업 인수·합병 자문, 이전가격자문, 회계 및 세무 아웃소싱, 해외파견 임직원 세무 및 과세자문 등의 다양한 세무 분야에서 차별화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권지원 대표

세무자문부문 대표

☎ 02 6676 2416
@ jekwon@deloitte.com



구현모 파트너

Tax Technology Consulting |
세무자문부문

☎ 02 6676 2126
@ hygoo@deloitte.com



이용찬 파트너

이전가격 자문 그룹 |
세무자문부문

☎ 02 6676 2828
@ yongclee@deloitte.com



이신호 파트너

국제 조세 자문 그룹 |
세무자문부문

☎ 02 6676 2375
@ shinlee@deloitte.com



최승웅 파트너

기업 세무자문 그룹 |
세무자문부문

☎ 02 6676 2517
@ seungchoi@deloitte.com



임홍남 파트너

기업 세무자문 그룹 |
세무자문부문

☎ 02 6676 2336
@ honglim@deloitte.com



서민수 파트너

해외 파견 임직원 세무자문 그룹 |
세무자문부문

☎ 02 6676 2590
@ mseo@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연구원

김혜련 Senior Manager
hyerykim@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